

附錄 中原文化研究所 '97 定期 學術會議 討論 速記錄

◆中原地域의 姓氏와 族團◆

高麗의 建國과 鎭州 林氏의 役割

사회 차 용 걸 (충북대학교 교수)

高麗前期 淸州金氏와 法相宗

발표 신 호 철 (충북대학교 교수)

토론 조 인 성 (경희대학교 교수)

중원지역 성씨·인물의 연구현황과 과제

발표 김 수 태 (충남대학교 교수)

토론 김 갑 동 (원광대학교 교수)

湖西土族社會에서의 光山金氏 門閥

발표 이 해 준 (공주대학교 교수)

토론 신 영 우 (충북대학교 교수)

발표 이 영 춘 (국사편찬위원회)

토론 이 민 원 (한국교원대 강사)

◆ 조인성

먼저, 신호철교수는 우선 왕건 즉위 직후 진주 출신 임명필과 임희가 각각 순군부와 병부의 장관에 임명되었던 점을 중시하였다. 아울러 임명필의 딸이 태조의 비가 되었고(숙목부인), 임희의 딸이 무(혜종)의 비가 되었고(의화왕후), 그 소생이 소(광종)와 혼인하였던 점 등(경화공부인)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신호수는 고려의 성립에서부터 그후 광종대까지 진주 임씨세력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파악하였다.

진주 임씨세력이 고려 초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중이 컸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가령 정용숙, 『고려시대의 후비』, 53쪽, 1992, 61-62쪽). 그런데 진주 임씨세력의 동향을 고려 초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로는 신호수의 연구가 최초의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는 신라 말 고려 초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대두한 호족에 대한 일종의 개별 연구로서 호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토론자는 신호수의 논지에 대체로 동감하고 있다. 다만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없지도 않다. 이제부터 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써 토론자의 책무를 면하려고 한다.

둘째, 신호수의 결론에 따르면 “진주 임씨는 신라 말기 이래 진주 지방의 강력한 호족세력으로 고려 건국에 커다란 공을 세웠”으며, “그 결고 개국공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외척세력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임명필과 임희가 왕건의 즉위에 일정하게 공헌하였으리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다 아는 바와 같이 고려 성립의 일등공신은 홍유를 포함한 4인이었으며, 이등공신은 견권 등 7인으로서 이들의 명단이 전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임명필이나 임희의 이름은 들어 있지 않다. 두 사람은 이름이 전하지 않는 2천여명의 삼등공신에 포함되는 것일까. 왕건의 즉위 과정에서 진주 임씨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니와, 신호수는 그들의 역할을 다소 과대평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셋째, 신호수는 “서열 11위인 광평시랑에 임명된 알찬 임적여, 20위인 도향사경에 임명된 임상란 그리고 27위인 광평낭중에 임명된 임식” 등도 진주 임씨세력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는 대체로 인정되고 있지만(가령 이수건, 『고려중세사회사연구』, 1984, 128쪽, 186쪽), 고려 초에 경주 출신의 임연이 확인되고(앞의 책, 130-131쪽), 예천 임씨의 조상도 그러하다고 하므로(앞의 책, 206쪽)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즉위에 즈음하여 여러 세력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을 태조의 입장을 감안하여 본다면 그가 지나치게 진주 임씨세력을 중용한다는 혐의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리도 사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호수가 왕건 즉위 직후의 인사 발령에 보이는 인물들의(인사)서열을 매긴 것은 약간의 착오가 아닐까 한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이때 인사발령에는 나오지 않는 관부(가령 원봉성)와 관직이 있으므로 그것은 서열이라기 보다는 순서라고 해야 할 듯하다.

넷째, 신호수는 진주 임씨세력이 광종대까지는 정치적으로 건재하였으며, 경종대로부터 중앙 정계에서 밀려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임희가 광종 비의 외조라는 점, 태조와 임명필의 딸인 숙목부인의 소생 원녕태자로 생각되는 진주랑군이 경종 원년 복수가 허용됨으로써 죽음을 당하였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승로가 그의 상서문에서 “후생참적”의 죽음이 마땅하고 하면서 “오직 천안/진주 두 낭군은 본래 황가의 후손이었으므로 광종도 오히려 스스로 관용을 베풀어 마침내 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았다”는 구절은 다시 음미해볼 여지가 있을 듯하다. 이는 진주랑군이 광종대 숙청의 위기에 몰렸음을 일러 주고 있다. 비록 광종이 관용을 베풀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는 광종과 진주랑군과의 관계가 가까웠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숙청의 위기를 맞게 되면서부터 진주낭군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

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아마도 광종 말년부터는 진주 임씨세력의 정치적 비중이 감소하고 있었다고 여겨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다섯째, 신교수는 진천의 옛 지명인 강주와 진주의 지명 연혁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그 중 진주와 관련하여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고려사』에 따르면 태조는 청주세력의 반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홍유와 유금필로 하여금 병사를 이끌고 “鎭鎭州”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홍유와 유금필이 파견되기 전에 이미 진주라는 지명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청주세력이 장차 모반하려고 한다는 도안군의 보고가 있자 태조는 또 능식을 보내어 병사를 이끌고 “鎭撫”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진무”의 사전적 의미는 민심을 진정시켜 안무한다는 것이므로 그 대상 지역은 청주였음직하다. 능식은 청주에서 진무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신교수의 의견대로 진주를 “청주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를 ‘진주’시킨 곳 혹은 반란세력의 ‘진무’에 성공한 곳이라는 데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까 한다.

여섯째, 이상에서 신교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갖게 되었던 의문 몇 가지를 제기하였다. 토론자의 공부가 부족하여 오해가 있거나 않았을까 걱정이 된다. 다만 이러한 문제제기가 신교수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선학들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참고할 점이 있다면 다행이겠다.

◆ 신호철

신호철입니다. 우선 조인성교수께서 지정토론에 참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인성교수가 지적해 주신 문제는 크게 네가지인 것 같은데요 제게 주어진 답변시간이 짧아서, 얼마만큼 이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첫번째 지적은 왕건의 즉위과정에서 진주 임씨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유로 고려 성립의 일등공신 4명이나 이등공신 7명의 명단에 진주 임씨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주 임씨들, 구체적으로 임명필이나 임희 등의 명단이 1.2등 공신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1.2등 공신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역할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등 공신에 해당되는 인물은 그 성격이 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좀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1.2등 공신들은 토착적인 배경을 가진 호족세력 계열이 아니라 왕건 휘하의 親衛 武將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왕건이 태조로 즉위한 직후의 인사발령에서 軍權을 장악하는 순군부와 병부의 장관 모두가 한 지역의 성씨 집단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고, 그것이 고려 건국기 진주 지방이 갖는 특별한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점에 착안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려 건국과정에서 진주 호족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주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건국 직후의 인사발령에 보이는 인물들 중에 광평시랑에 임명된 임적여, 도항사경에 임명된 임상관, 그리고 광평낭중에 임명된 임식 등을 모두 진주 임씨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물론 저 역시 이들이 모두 진주 임씨라고 고집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기록이 위의 인사발령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자료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앞의 발표문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고려 건국과정에서 청주의 호족과 관련해서 진주 지방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으므로 이 지역의 호족이 많이 등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조인성교수도 지적했지만 진주 임씨 이외의 임씨 성을 가진 인물들의 기록도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진주 임씨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르지요. 사실 저는 이들이 아니라 해도 앞서의 임명필과 임희만 가지고도,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고려건국기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 역시 진주 임씨

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인사발령에 보이는 인물들의 서열을 매긴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로 인사발령에 나오지 않는 관부도 있다는 점을 들으셨습니다. 이 점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제가 말한 관직의 서열이라는 것은 고려초기 모든 관부나 관직의 서열(인사발령에 나오지 않는 관부까지를 포함해서)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료 가)에 보이는 인물들의 서열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숙목부인의 소생인 원녕태자가 광종대에 숙청위기를 맞게되었다는 점을 들어 진주 임씨세력이 광종 말년에는 정치적 비중이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조교수와 견해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녕태자가 광종에 의해 숙청당할 뻔 한 것인지, 아니면 호족세력에 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광종의 배려로 온존하였다는 것인지 해석 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임씨세력들은 광종의 외척으로써 그 정치적 입지가 건국전후부터 광종때까지 온존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으며, 광종 말년이나 경종대에 와서는 크게 쇠퇴해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번째 지적은 鎭州의 지명에 대한 유래에 대한 것인데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년전에 독립해서 조그만 글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원 논문에는 좀더 자세하게 논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다만 조인성교수는 태조가 홍유와 유금필로 하여금 “鎭鎭州”했다는 사료를 들어 홍유와 유금필이 이곳에 진주하기 전에 이미 “鎭州”라는 지명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진주라는 지명은 고려사 찬자에 의해 소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사료에 보이는 신라말 고려초의 地名 대부분이 후대 사가들에 의해 소급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淸州라는 지명도 고려 건국 후에 고쳐진 것이지만 이미 신라말의 기사에 자주 보입니다. 따라서 홍유, 유금필이 “鎭鎭州”했다는 사료만 가지고 이때 이미 진주라는 지명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高麗前期 淸州 金氏와 法相宗

◆ 김갑동

첫째, 정치사적인 전개 과정과 사상의 변화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역사적인 결과에 사상의 변화를 대입시키게 될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궁예의 미륵신앙이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자 청주 김씨를 중심으로 하는 진표계 범상종이 반발하여 친왕건세력이 되었다든가 이자겸난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정현계 범상종과 해린계 범상종의 대립에서 정현계 범상종이 승리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둘째, ‘청주 김씨와 관련된 불교 종파는 선종보다 오히려 교종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견해⇒혜종 원년(944) 청주의 김석희가 단월로 나오는 정토사는 선종사찰이었다. 정토사 범경대사가 “불교를 널리 떨치고 선종을 자세히 보여주었다(부양석교 선시선종)”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반면 용두사 당간기는 광종 13년(963)의 것이어서 그것이 범상종 사찰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라말 고려초에는 선종과 결합하였던 청주 김씨가 광종 이후 사상계의 추이에 따라 교종 즉 범상종과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 청주 김씨를 비롯한 청주 지역이 궁예의 복합적인 미륵 신앙에 반발하여 친왕건세력화하였다면 왕건 즉위 후 일어난 청주세력의 반란, 즉 순군리 임춘길의 난과 진선·선장 형제의 모반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나아가 궁예세력과 왕건세력과 왕건세력을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보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넷째, 釋聰과 釋忠을 동일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석충은 911년에 죽고, 석충은 왕건이 왕위에

즉위한 후 진표의 가사와 戒簡子를 준 것이 아닌가 한다. 석충이 궁예가 살아 있을 때 미륵불을 자처한 궁예를 제치고 그 밑에 있던 왕건에게 가사와 계간자를 주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玄化寺의 2대 주지였던 정현계 법상종과 3대 주지였던 해린계 법상종은 어떤 차이가 있어 정현계 법상종은 진표계 법상종으로 보고 해린계 법상종은 태현계 법상종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상적 차이 때문인가, 법통의 차이 때문인가?

여섯째, 韶顯은 후에 현화사의 5대 주지가 되기도 했지만 그 보다 먼저 김제 금산사의 주지로 있었다. 따라서 학자들은 그를 진표계 법상종 승려로 보는데 새로이 태현계 법상종 승려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 김수대

첫번째 정치사적 전개과정과 사상의 변화과정을 너무 대입시키는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상사 연구 방법론에서 현재 논쟁이 되는 부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아까 김갑동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상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리적인 부분까지 검토할 능력도 없었지만, 그것 보다는 일단 어떤 정치사적인 전개과정과 사상의 변화과정이 잘 맞물리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봤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상사 연구 방법론과 관계해 가지고,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정치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정치적인 변화와 사상의 변화를 관련시키기 위한 여전히 유효한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궁예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자점의 난을 중심으로 해서 정현계하고 해린계가 그렇게 딱 나뉘지는 것은 거기서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 청주김씨와 선종과의 관련, 청주김씨와 교종과의 관련, 그러니까 청주김씨가 법상종과 관련을 맺게 된 시기가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좀 하면서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신라 하대 진표 사후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 아니냐, 또 김현창의 난 이후에 청주가 반신라적으로 돌아가면서 받았는 것이 아니냐, 또 진표가 반신라적이고 진표의 미륵신앙이 반신라적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지역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여기 게시는 신호철 선생님한테 청주김씨 한다 하니까 청주김씨에 대해서 뭐 또 할게 있냐고 이야기를 전하여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청주에 대해서는 정치사 논문은 워낙 많습니다. 지금 10여편 이상의 정치사 논문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발표에서도 그랬지만 충주의 그 당시 유교와, 여기 청주지역에 학교가 만들어졌다 하면 그 학교에서의 유교교육하고 어떻게 다른가라든지, 공통점이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려고 노력했지만 그 부분은 역시 못 미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김씨와 정토사 범경대사와의 - 선종인데, - 아까도 발표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선종승려 중에서도 정토사 범경대사는 선상, 용혜의 그런 사상적인 특징을 가진 승려이다 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청주김씨가 광종대 이후에 법상종하고 결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것은 광종대 법상종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것보다는 역시 신라말기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기가 올라가는, 어느 시긴지 모르지만, 일정한 시점에 청주김씨가 법상종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광종대 법상종의 동향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한 언급이 있지만 광종대에 있어서는 역시 법상종이 새롭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종대에 새롭게 움직여서 그 다음에 목종, 현종대를 거쳐가는데, 이 발표에서 제가 청주김씨, 중앙의 청주김씨하고 지방의 청주김씨 이렇게 나눠서 보면서 밀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려 개경에서의 법상종 동향하고 지방의 법상종 동향이 어떤 차

이를 가지는가, 어떤 변화과정을 달리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청주지역이 궁예의 진정한 세력기반이나, 그것은 최근의 연구경향을 보면, 청주가 확실히 궁예의 세력기반이라는 것을 더욱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청주지역의 반란문제는, 청주지역에 여러 호족세력들이 있는데, 호족 세력 중에서도 또 궁예와 관계된 지역, 왕건과 관계된 여러 세력의 움직임이 복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도 청주김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호족 중에서도 청주김씨는 다른 성격의 호족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도 기회가 닿는다면 청주 호족들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석충하고 석충이 동일인물이나, 그것은 신호철선생님께서 동일인물 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석충, 동일인물이라면 911년에 죽는데, 진표의 단좌를 언제 쫓느냐 하는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기의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최근의 진표의 법맥을 집중적으로 정리한 조인성 선생님의 설명을 보니까 석충이 분명히 죽기 전에 왕건한테 넘겼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여기서도 간략하게 했지만, 청주지역의 호족세력들의 움직임을 볼 때 그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해린계 법상종하고 태현계 법상종 문제, 법통의 차이나 사상적인 차이나 이렇게 되면 법맥의 차이만을 강조했는데, 분명히 교학의 차이도, 사상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은 없는데, 고려시대 법상종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를 제가 정리하여 볼 때 교학의 차이나, 간단하게 정리하면, 태현계 쪽에는 경전을 상당히 강조하고, 해린계 쪽에는 경전을 강조하고, 정현계 쪽에서는 진표의 계율참여를 점차로 강조하는 뚜렷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일정하게 분류해서 나눠 놓진 않았지만 이렇게 분류해 보면 그러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현화사 부분입니다만, 현화사가 미륵하고 미타를 중요시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법상종 그 부분을 다룬다면 그건 분명히 태현계입니다. 태현계인데, 법경같은 경우는 어느 계통인지 모르지만, 정현 다음에 해린, 승려들이 정현계, 해린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현화사의 어떤 사상적인 경향이라든지 그런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을 했지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현화사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현이 진표계 법상종이나 태현계 법상종이나. 그런데 소현 비문을 읽어보면 그게 진표란 말이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시피, 금산사가 진표와 관련된 사찰이기 때문에, 자꾸 그걸 진표하고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찌기 허흥표선생이라든지, 여기 있는 조인성 선생님도 이야기 했지만, 미륵신앙, 견훤의 불교신앙, 불교기반, 그러니까 불교적 기반중에서 금산사하고 미륵사가 있는데, 미륵신앙의 분열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산사가 일정한 어떤 변화과정을 밟는 것이 아닌가, 또 그 변화과정을 좀 더 고려해야지, 그렇지 않고 오로지 진표가 관계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진표계라고 하는 것 보다는, 여기서 발표에 강조했다시피, 법맥이 어떻게 이어가는가를 강조한다면 금산사보다는 속리산 범주사가 강조될 것이고 거기서 석충이 왕건에게 보다는, 석충이 또 왕건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오히려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주 부분이 일반적으로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명주 부분이 강조되는 것도 법맥부분과 관계해서 조금 더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광교원이라든지 선리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우

발표자 말씀대로 이 주제는 구체적인 사실가지고 발표·토론하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사 연구의 방법론에 관해서 발표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의 제일 첫번째에서 이것을 다루거나, 아니면 마지막에서 정리하는 식으로 다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해준 선생은 지금까지 한국내에서 한국사를 현지조사해서 연구하는 업적을 가장 크게 남긴 분입니다. 여러 구체적인 사실을 많이 밝혀내서 학계에 크게 기여를 했죠. 그리고 그런 현지조사와 관련해서 조사방법에 관한 여러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표문 가운데서 주 2번에 나와 있는 것을 잘 보시면 우리 한국사연구에서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도 대체로 기존에 발표한, 기존에 발표한 서술내용에 주요한 핵심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한 연구자가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해서 그 방법을 압축한, 그리고 여러가지 사례를 집약한 그런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발표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이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개가 동감입니다. 저는 간단한 의견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방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더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로 간단히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것은 소외사 연구입니다. 한국사 연구는 대체로 지금까지 정치사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되고 공부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사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쉽고, 또 그것만 역사의 전체로 이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세계 학계의 최근 동향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또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그래서 기존의 인간사회에 관해서 연구한 그런 이론들을 새로운 다른 방식으로 모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사회사 분야이죠. 사회사 연구 즉,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각 시대 사회구성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런 사회구성이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긴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사 연구에서는 이것이 아주 미진한 분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주제로 잡은 중원지역, 충북지역이라고 할지, 충청도지역이라고 할지, 이 지역에 관한 연구는 아주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가. 그건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연구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료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지조사를 해보면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전, 이백년전 또는 삼·사백년전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우리 선조들은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많이 아는 예를 든다면 족보와 같은 것이 있고, 또 각 집안의 재산문서를 잘 남겨놓고 있죠. 그리고 여러 집안과 교류했던 그런 내용도 잘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는 개인이 쓴 일기라든가, 또는 그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서 기록해 왔던 그런 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사돼서 연구에 이용됐다면 한국사가 우리가 지금 사학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없는 학문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참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는 참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서 외국 초·중등학교의 역사교과서를 관심있게 수집하고 보는데, 거기에는 역사는 재미있게 서술을 시작합니다. 재미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재미있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사는 이것은 연구자가 보더라도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초·중등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게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가장 큰 원인이 자료부족이다 하는 애깁니다. 그 자료가 왜 부족한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인멸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애깁니다. 후손이 보존을 잘못해서 인멸시켰다 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죠. 또 지금 남아있는 것 조차도 연구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집안에서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가서 좀 보자고 해도 무슨 큰 재산이나 되는 것처럼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들어가면 아파트 창고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또 증원, 충청도 지역 연구가 어렵게 된 것은 연구자가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그렇다 하는 자책을 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에서 연구를 한다면 물론, 이 충북대학 또는 청주에 있는 대학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충북대학에서 지금까지 한 연구업적을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에 전지역을 다니면서 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걸 보면 전라남도 지역,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이해준 선생의 공을 우리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충청북도 지역에서도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충청북도에서 자료가 부족한 그 원인이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통이 좋았기 때문에 왕래하는 사람도 많고, 또는 이주한 사람도 많고, 또는 동성동본마을이 해체되어서 없어지는 그런것도 많고, 조금 공부했다, 돈 있다 하면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버리고 이 지역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연구할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고, 또 있는 자료도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서 큰 대학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쌓여서 묶여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이 지역 연구에 여러가지 저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좀 발표자께서 뭐 대답하실 말씀이 있어야 될거 같아서 한 두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향촌 사회 연구가 군현 단위로 연구하는 것이다 해서 군현 단위로 연구할 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근대사회 즉, 백년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영역은 군현 단위에 대체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작고할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태어난 마을이라든가, 그 주변 면이라든가, 군을 넘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군현 단위로 연구하는 것이 한국사연구, 한국 사회사 연구의 중요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사연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하나 있거나, 충청도에서 무슨 한 가지 일이 있거나, 경기도, 함경도에서 어떤 하나가 있으면 그 시대 모든 지역에서 똑 같은 일이 똑 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지조사를 하는 사람 생각에서는 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체로 한 시대의 특징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 군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지적하고 왜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각 지역,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것을 취약하는 것이 사회사연구에 중요한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군현 단위에 머물러서는 연구가 더 전개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권역별로, 청주 같으면 청주 주변에 여러 군현이 이어져 있고, 농사 짓는데도 이러저런 도움도 주고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권역 단위로 연구가 선행되고 이것이 도 전체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많은 조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이 있을테니까 좀 보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그 마을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가. 이게 중요한 연구로 제기된다고 했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지조사를 해 본 것을 보면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마을이 있고 그리고 아주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대개 고려말 조선초에 성립한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그 마을이 언제 생겼는가 생각해 보면 고려말 조선초, 왜구가 쳐들어 오고 홍건적이 들어오고 또 정변이 일어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초에 주요한 마을들이 자리잡게 되고 거기서 후손을 번성시키고 그렇게 해 왔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을이 성립된 그런 것을 보면 임난 때의 일입니다. 대개 임난 때 오랫동안 피난을 했기 때문에 피난지가 마을로 굳어집니다. 거기서 즉, 왜 이렇게 불편한 데 사는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추적해 보면 임난 때 피난해 가지고 우리 선조가 이게 그 혼란했던 그런 시기에 살기 좋은 마을이다 해 가지고 정착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사회학적인 방법 중에서 여러 지역을 검토·조사해 보면 아주 중요한 한국사의 흐름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지역을 잡아서 집중 조

사·연구를 하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재미있는 역사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해준

저는 조선시대 얘기를 주로 했는데, 신선생님이 전공하시는 시기가 한말, 근현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꼭 말씀 드리고. 지금 두가지 질문인데 사실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권·생활권 이것이 어떻게 범위가, 대개 우리가 군현 단위 향촌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정단위죠. 지금 아마 저기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그걸 갈라가지고 일을 해 보면 정확히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삼백년, 사백년의 동일한 행정단위에 묶여지면서 사실은 그 지배세력도 그렇게 된 단 말이죠. 그러나 생활문화로 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예컨대 시장을, 5일장을 본다고 할 때 대체로 한 시군, 요즘의 시군 단위 안에서 5일장이 다섯개가 설텐데, 남쪽에 있는 데는 그 남쪽에 있는 군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닌가. 생활권과 저희가 얘기하는 정치적 지배세력의 권역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시의원이나 마을 유지급들이 출현하는 곳은 시 소재지 아닙니까. 거기 가서 어떤 자기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생활문화로 할 때는 대체로 마을 단위가 제일 작은 단위이면서 자연적인 경계를 중심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돼야될 것 같고, 충북은 우선 충주하고 청주지역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방언이란든지, 민속이란든지, 노래라든지, 역사를 갖고 얘길 하잖습니까. 충남같은 경우도 차령산맥을 사이에 두고 공주목 지역하고, 홍주목 지역이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도 행정구역 재편이 야기가 나왔어요. 충남도청을 이전한다는데, 지금 싸움판이 역시 홍주, 공주가 싸웁니다. 그런데 홍주에 가서 공주 얘기를 하면 배신자가 되버리고, 공주에서 홍주 얘길 하면, 이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인데, 홍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매포문화라고 해서 서천에서 보령, 홍성, 태안, 서산, 당진, 아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것은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한산 모시가 팔릴 때 저산 팔음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한산 모시 유통권, 그런데 아마 군현보다 큰 원일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체로 보통 양반 마을은 대개 두가지 스타일입니다. 조선, 여말 선초, 임진왜란. 그래서 대개 중시조나 입향조가 10대에서 15대가 제일 많고요. 그게 대개 임진왜란 때이고, 13대나 14대나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요. 40에, 그 집안이 애 늦게 낳기 시작하면, 10대로 나가는 것이고, 15살에 계속 빨리 결혼하고 낳으면 20대도 가능하죠.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대체로 임진왜란, 그 이전 조선 전기는 특히 두 계열인데, 가풍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낳은 아이, 연산군의 폭정 때, 세조의 찬탈 때, 두문동,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계열로 보면, 왜구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제가 보충을 한다면, 그 피난의 은거지로 왔다는 것은, 안온한 동족, 양반마을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을은 지금 거의 시골마을이죠. 아주 발전하는 마을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적어도 16세기, 17세기의 상황이고, 18세기나 19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백 년 전의 상황은 절대 그렇게 우리가 풍수로 얘기하는 안온한 마을이 아니라 야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경지와 농업생산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논농사가 중심이 됐느냐, 밭농사가 중심이 됐느냐, 그래서 야지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도 시골출신입니다만은 뭐 새말이라든지, 새터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있잖습니까. 그런 야지로 내려와서 새롭게 형성되는 마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을일수록 오히려 그 연대가 짧게 되겠구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한 지역에서도 같은 계보를 잇는 마을들이 등차를 가지고 성립이 될 수 있고, 같은 성씨의 동족마을인데도 17대조가 입향을 했는데 13대조에 가서 분가를 해 가지고 이 마을이 생겼다, 이거 가능한거죠. 제가 지금 사족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이 농민생활이라든가 향리들이라든가. 사실 한 시기에 지역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신분적으

로 반과 상과 천과 중인 이게 다 같이 돌아가잖습니까. 그런 자료를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얘기 할 수 밖에 없는게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중인의 후손이 없잖아요. 쌍놈의 후손이 여기 없어요. 그리고 종의 자손이 더욱 없겠죠. 그래서 이게 뭐 뒤섞여서 그런데 사실은, 저 어릴 때만 해도 분명했는데, 그것은 사실 찾아 가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제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湖西士族社會에서의 光山金氏 門閥

◆ 이민원

이민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토론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드릴 거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춘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호서의 광김 가문은 호서 사족을 중앙정계로 진출시키는 교두보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중앙의 노론정권을 지탱해 준 지방세력이고 또 몇몇 가문은 관료로 중앙으로 진출했는가 하면은 또 호서 일대에 분포하여 사족사에서 중심역할을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요약이 될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영춘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견을 제기한다거나 할 입장은 못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글을 읽으면서 몇가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또 다소 좀 설명이 보충됐으면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서론 부분중에서 개념문제인데요. 호서학과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남학과, 기호학과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호서학과를 따로 놓는다면, 기호학과내에서 호서학과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설정한다고 한다면 기호학과 중에서 호서학과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어떤 학문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분위기라고 할까요. 가령 경기지역이나 호남 지역의 어떤 학과, 이쪽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기호학과라고 하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거의 정착이 된 것인지, 또 그렇게 정착이 된 것이라면 경기나 호남지역의 어떤 학과라고 할 때 그 쪽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 학문상의 차이점은 또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광산김씨 문벌의 성장배경을 학맥과 정치적 배경을 연결시켜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구요. 학문적·정치적 배경도 물론 광산 김씨 성장과정에서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경제적 기반문제,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돼야되지 않을까. 물론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그 이전에 학문적 성장이 이뤄졌으니까 경제적으로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착하기 이전에 역시 경제적 기반도 어느 정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현재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계·신독재학과와 호서 성리학의 추이, 3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권상하의 문인들이 100년간 인물성동이론에 대해서 그 논쟁을 전개했고, 또 임성주는 이의 극복을 위해서 독특한 주기철학을 제시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떤 학문적인, 또 사상적인 논쟁인 것 같은데, 그러한 논쟁이 전개될 당시에 대국적으로 보면 명나라와 청나라가 대륙에서 교체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가령 조정도 그렇고 당시의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역시 중원의 패자로 등장한 청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과 결부되어서 인물성동이론 논쟁의 현실적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서울쪽의 학자들과 또 호서지역의 학자들, 현실과 명분사이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사계·신독재의 후학들 중에 특히 우암 송시열이 효종과 이완, 송시열 이렇게 해서 이 세 인물은 북벌론, 또 북벌을 준비한 핵심인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학자들 중에는 북벌론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주장이었느냐, 그 당시에, 그것이 아니고 양난 이후에 민심수습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제기해서 하나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념, 이러한 차원에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암의 문집과 같은 데서 보면 실제로 북벌을 강력히 주장했다가 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군으로 쓰였던 수양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많은데, 과연 우암 송시열의 북벌론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 부분은 이영춘 선생님이 좀 연구하신 글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호서사림은 본문에서 설명을 많이 하셨듯이 보수적인 윤리와 예속의 보급, 또 질서유지에 앞장을 섰다. 그래서 승정학적이란 정통주의를 확립해서 17세기 이후 중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렇습니다. 역시 그와 같은 입장, 또 그와 같은 역할, 그와 같은 학문적인 풍토, 이런 것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가지는 공시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령 18세기, 19세기로 내려오면서 서세동점의 분위기 하에 이와 같은 학풍이나 그 학맥이 어떻게 보면 공시적으로 어떤 순기능적인 혹은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후대에 와서 역시 통시적으로 볼 때 순기능적인 또 역기능적인 측면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쇠국이나 개항이나, 또 서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시적·통시적인 어떤 의미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에서 세가지만 선택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사석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춘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 글이 미약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모지를 받고 시간에 하도 쫓기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가지 빼먹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려한 광산 김씨 가문이 호서 사족사에 과연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했느냐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요. 미처 말씀 못 드리것 같습니다. 대개 한 세가지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호서사족사에서 광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 3장하고 결론에 제가 정리해서 써놓긴 써 놨습니다. 읽어드리지 못했는데요. 첫째는 역시 이 호서기호학과, 호서학과라고 할까요. 질문하셨습니다만 호서학과라고 할 만한, 제가 그렇게 써놓은 것은 아니고, 쓰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학자들 중에서 특히 호서지방의 학자들 중에서, 지금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호서학과라고 쓰자고 하면 분명한 칼라를 지적해 내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는 사실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호서사족사에서 광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학문적 기호학을 서울에서부터 이쪽으로, 호서지방으로 이동시키고, 여기서 기호학문전통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계와 신독재에 의해서, 처음 그러하고, 그러한 학문을 통해서 학문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하는 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학문공동체를 통해서 또 정치집단까지도 형성했다고 하는 점. 산당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계와 신독재선생 때 호서사족사회에 미친 크나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는 광김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계의 제자들에 의해서 어떤 학문집단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호서사족들을 중앙정계로 진출시키는 매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의 관료제도나 이런 것이 과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만 그렇더라도 사실은 순전히 인맥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A는 B의 아들을 추천해주고, 또 고관 B는 또 A의 아들을 추천해 주고, 서로 추천해 주면서 되는 것이 되는데, 사계, 우암, 동춘당이 이조판서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호서지방의 학자들을 서울로 진출시켰습니다. 또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후에 아주 광김이 중앙의 문벌로 성장해서 고관대작을 역임하면서 많은 충청호서사림들을 중앙정계로 진출시키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계 뿐 아니라 연산을 중

심으로 한 호서사회에서 계속, 주로 사계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셨습니다만. 증손과 후손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서사족사회의 중심축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이 광김의 호서사족사회에서의 영향 혹은 기능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호서학파의 성격이라고 할까 그게 기호학파와 어떻게 다르고 또 다른 경로나 호남지역과 무슨 다른 점이 있느냐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겠습니다만 대개 기호학파는 초창기에는 우계, 율곡. 우계 역시 서울지역의 기호학파의 중심이었겠습니다만, 이후 사계 이후로는 기호학파의 중심이 호서지역이 되기 때문에 후기 기호학파의 주류가 된 것이다. 그것을, 그 후에는 물론 서울쪽에서도 나오는 계열의 학자들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주류는 이 호서지방이었습니다. 이것을 호서학파라고 할 수 있을지, 그것은 또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김씨의 경제적 기반, 여기에서는 제가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김국광 형제가 영의정, 정승판서를 하면서 또 공신이 되면서, 광산부원군, 광산군이 세조공신이 되면서 많은 토지와 노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적 기반의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의 경제 기반이라고 하면 군적이라든지 고문서라든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인물성동이론 이 문제는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인데,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긴 곤란하고요. 다음 우암의 북벌론 문제에 대해서, 우암의 북벌론은 광산 김씨, 이 주제와 사실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그렇다라도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이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서너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효종이나, 모든 자료를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효종이나 우암이 북벌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당시의 형편이 북벌할 형편이 아니고요. 당시 청나라 군대가 2백만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효종은 직접 보고 왔거든요. 청나라가 1644년에 북경을 칠 때 효종이 그 전쟁의 원정군에 포함되어 가지고 같이 종군을 했었는데, 청나라 군대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2백만 청나라 군대에 비해서 10만양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효종이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건 있을 수 없고요. 또 우암의, 아마 그 북벌론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암으로 치고 있는데, 이 분의 여러 상소를, 여러가지 편지를 다 검토해 봐도 진짜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첫째는, 민족자존의식의 고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략을 받아 이려고 있지만 그래도 복수설치의 대의를, 이걸 잊어버리면 안된다 말이에요. 늘 하는 말이 그거죠. 이런 민족자존의식의 강조라는 그런 측면에서 북벌론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음 민생의 안정, 우암이 주장하는 것은, 북벌을 하자면 국력신장이 먼저다. 국력의 강화와 민생의 안정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벌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생안정부터 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또 하나 효종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북벌을 기치로 내걸어 군대를 양성해야겠다는 것이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국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와 같은 왕권이, 서인 공신세력들에 의해서 왕권이 늘리고, 왕의 발언권이 영 안서고 할 때, 하여튼 북벌론을 내세워가지고 경복궁을 재건하고, 왕의 친위군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서인. 왕의 측면에서 말하면 당시 치열한 당쟁의 와중이었기 때문에 당쟁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는 대의명분을 내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북벌론 이걸 딱 내걸면 아무도 북벌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할 거 아니에요. 실제 속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은 못한단 말이죠. 이걸 내걸어 가지고 반대자의 입을 막아놓고 정책주장을 펴고,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사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개 그런 것이고.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차용걸(사회) : 예, 두분 발표·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계속해서 종합토론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부터 대개 쪽 시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려건국기와 관련해서 신호철 교수께서 진주 임씨 세력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조인성 교수께서 토론을 이제 세가지 정도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전기의 청주김씨 세력과 범상종에 관해서 충남대 김수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였고 김갑동 교수께서 여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준 교수께서 발표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토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영우 선생께서 말이 많았는데, 처음에 두 가지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광산김씨 관련, 이영춘 선생의 발표에 대해서 다섯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너무 큰 것이 많습니다. 서울 의지연 관계라든지 호서사림의, 나중에 서세동점의 분위기에서의 순기능과 역기능, 재상이라든지 하는 것과, 서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광범위한 말하자면 조선후기 개항, 근대화로 이어지는 데에 있어서의 아주 그 전반적인 문제까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토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토론을, 지정 토론을 하시고 발표자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토론자가 즉시 아 빠트렸다 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런것을 물어볼걸 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토론하신 분들에게 한 마디씩만 더 두세개로 다시 한번 토론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꽤 많은 사상을 하셨습니다만은 조인성 선생께서 좀 한가지만 신호철 선생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성(경희대 교수) : 질문을 몇 가지 써가지고 왔고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드릴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신교수님께서 하신 답변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흔히 그 어떤 가문이나 인물이나 이런 그 쪽을 연구할 경우, 연구하는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연구하는 인물이나 가문을 뭐라그럴까요 좀 이렇게 지나치게 그 저 평가를, 지나치다 하는 말도 좀 뭐 딱 맞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이렇게 좀 직관적인 것 보다는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듯한 경우가 많은데 그 제가 처음에 저 진주임씨의 역할을 다소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다고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 과연 그 얼마만한 역할을 하였던 것일까. 이 경우에 이게 인제 신호철 교수님께서서는 다른 글에서도 그랬고 이미 왕건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서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집권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거와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서, 공예 밑에 왕건이 시중하고 이리면서, 그렇게 까지 많은 세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못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거기에서 그 진주임씨 같은 경우에 그것도 그 기본적인 생각,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 말고요, 그 전에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주 임씨에 대한, 그 임씨에 대한 평가도 뭐 서로 어긋나는 것이 생기게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이랄 것은 없고, 그저 앞서 신교수님께서 얘길 하였고, 저는 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저의 생각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할까 합니다.

◆ 차용걸(사회) :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아닌데... 교수님은 많은데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 결혼을 많이 한 고려테조 왕건이 왕이 되어서 다 결혼한 거 예요, 왕 시중하면서, 왕 전에 다 한 겁니까, 그 두어 다스가 넘던데... 임씨하고는 왕 되기 전에 한 건지, 왕이, 918년인가 되고 나서 한 건지만 고거 짧게 대답하...

◆ 신호철(충북대 교수) : 우선 두번째 질문, 그 스물아홉명의 비를 두었... 기록에 나와 있는거만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물론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적으로, 지방호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첫째 아까 얘기 한 나주 오씨 같은 경우는 궁예의 부하로서 이제 나주 정벌을 갔다가 혼인을 하였습니다. 진주도 그 당시 상황에 보면,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정성숙 교수는 건국 초기에 했을 것이다. 가장 초기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기록이 없긴 하지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국 전이다. 항주와 관련해서 그렇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결혼 연령하고 아까 얘기한 진주낭군하고 연령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될 거 같다 하는 겁니다. 물론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려 초기의 기록이라는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만은... 그러니까 혼인 중에 대부분 결혼 후에, 아 즉위 후에 했지만, 즉위 전에한 혼인 관계도 몇 사례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첫번째 질문 이것도 사실은 조인성 교수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지금 보니까 진주 임씨가 왕건 즉위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럴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이제 여기 진주임씨를 얘기하니까 지금 고려초기의 유력한 호족에 대해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 호족에 대해선 저도 사실은 얼마전에 무슨 기회에 보다보니까 고려 건국 초기에 말이죠 군사권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두개의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군부하고 병부하고 이게 나란히 한 지역의 호족에 맡겼다는게 보통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아 이 진주호족이 왜 그랬을까 요건 아마 청주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요런데 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왕비도 3대에 걸쳐서 나오고 그래서 그 후에 비록, 지금 여기 진주 임씨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려전기에 이미 크게 쇠퇴해가지고 무명,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문벌에 속하지는 않았습다. 그러나 건국초기에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다. 우리가 아는 여러 유명문벌과 함께 지역으로서의 한 역할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너무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던가 어느 문벌 못지 않게 강했다던가, 아마 시기적으로 건국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별개지만, 제가 저 최근에 연구하면서 무슨 느낌을 받느냐하면 얼핏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 후기에 보면 말이죠 무인집권기의 그 집권자들이 대부분 신분이 낮습니다. 그래서 무슨 천민계열이니, 뭐 이렇게 얘길 하는데, 요새 와선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그냥 나타난건 아닐것이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진주 임씨의 후손인 이명희가 갑자기, 뭐 기록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저 뭐 천민계니, 그저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지역에 상당한 재지세력으로 존재하다가 물론 기회를 얻어서 이제 있었다. 요런 경우는 청주 경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대승이는 지금 그 선조를 알지 못한다. 이러구 청주 경씨 족보에 보면, 경대승을 일세로 올려놓습니다. 물론 고려사에 보면 경대승의 아버지가 경진이다 이래가지고 경진을 일세로 하고 있지만 이건 아마,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청주 경씨 자신들 조차도 그 선조를 몰랐던 거죠, 후에 경대승이가 인제 역적으로 몰리고 뭐 이래 가지고, 가장 근대에 족보를 거슬러올라가다 보니까 고려사에 경대승이가 있으니까 일세로 했지, 사실은 청주 경씨는 아까 저 김수태선생이 발표하신 것처럼 용두사 철당기를 세우는 데 아주 유력한 문벌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주에 초기에 가장 토착세력이다. 그러니까 경대승같은 경우에도 무인정권기에

.....무인출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무리 무인정권기에 신분이 혼란하고 그랬지만 노비출신이 갑자기 최고의 집권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 이것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어머니가 이제 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노로 되어 있는데, 부귀라든가 이 밖에 역시 토착배경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추측을 갖습니다. 그래서 진주 임씨에 대한 관심도 사실 이면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고려 초기에는 대단한, 이게 사실 순군부령하고 병부령은 병부령에 있었던 재임기간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마 곧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위 직후에 두 관부에 임명됐다 하는 것은 주목받아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역할이라는 것은

다른 문벌, 청주의 호족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으니까 진주임씨를 빛내자는 뜻이 아니고 당시의 역할이라든가, 왜 그런 호족이 그 후에 문벌로 생겨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역사와 관련시켜서 그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 차용걸(사회) : 지금 예정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빨리빨리... 조선후기 청주김씨와 법상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전기에 사실 범애산이야기도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이 있었는데, 김수태 선생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김갑동 선생께서는 별도로 더 질문하실게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더...

◆ 김갑동(원광대 교수) : 아무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또 밥 값을 못 하는것 같고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뭐 또 신라말기에 신라세력이 쇠퇴하면서 정치·군사적으로 여러가지 또 요인 때문에 견훤이라든가 궁예같은 세력가가 인제 나오게 됐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발표문에서 보면은 소위 진표계 법상종이 반신라적 경향을 가졌다. 뭐 이기백선생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 진표계 법상종이 금산사를 중심으로 해서 있다가 금산사에서 속리산지역으로 그리고 강원도 명주지역을 거쳐 가지고 금강산, 이쪽 부근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문에도 보면은 같은 진표계 법상종이지만은 견훤은 금산사를 자기 기반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궁예는 진표적통을 이은 청주지역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 계시는 조인성 선생님은 진표계 법상종이 명주지역에서 더욱 더 성행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명주지역이 사실상 또 궁예의 강력한 세력기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상사적으로 보면 견훤이나 궁예나 같은 진표계 법상종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런 세력을 지지세력으로 했다면, 뭐 소박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또 둘이 합쳐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신라에 대항했거나 신라를 흡수했거나 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니냐 라는 소박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다른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수태(충남대 교수) : 고점에 대해선 제가 생각을 못해봤고,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미륵신앙이라든지 법상종이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있는 상황에 대해서 차별성을 좀더 찾아서 구분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발표를 했고, 제가 청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릉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랬는데, 저는 강릉이라든지 금산사 못지않게 이 청주지역도 좀 더 관심을, 비판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도를 해본거지 제가 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 차용걸(사회) : 어쨌든 청주지역은 이 시기에 호족과 관련해서 기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도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산성에 대한 영조 때 고금사적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궁예 대궐터, 일조터, 해 가지고 전부 다 궁예 뭐와 관련되고 나중에 견훤이가 당안으로 달려와 가지고 함락시켜 버렸다는 기록이, 그런 기록이 실제 조선 영조 때까지 끈질기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같은 산줄기에 있는 초정약수터 뒤에 있는 구녀성도 궁예성이라고 그러합니다. 궁예. 궁예의 본거지였다 이래서... 청주세력과 궁예세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들 어렵풋이들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바로 내려다 보면 미호천유역의 넓은 들판이고 기암리라고 하는, 기암서원터가 있는 무슨, 부처가 있는데, 삼한때 고찰이다하는 그런 사찰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불교적인것, 유교적인 철당간,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올려주는 글을 발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준 선생님의 발표는 아까 신영우 선생님께서도 그러셨고, 이해준 선생님도 그러셨고,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식사하시면서 두 분이 하시기 바라고... 역시 우리가 광산김씨 문벌, 이영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고, 이민원 선생님께서 다섯가진가 질문을 하시면서, 미안해서 그러시는지 서너가지만 선택해서 답변을 주십사 했었는데... 전체가운데서 특별히 관련이 없고, 광범위한 것은 빼고... 아마 호서학파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충남대쪽에서 용어로 쓰시던 분들이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정모씨도... 지금 여기 계십니까. 예, 저기 나와계신데, 오히려 저쪽에다가 한번... 제가 한번 집권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서학파, 기호학파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누가 쓰는 것입니까. 실제로 쓰고 있습니까.

한남대학교 한기범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호서성리학, 호서예학... 호서학파라고까지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납니다만은 그렇고, 또 다른분들...

◆ 차용걸(사회) : 정신적으로, 어제 제가 잠깐 한 강연도 그런 내용을 물어 보고... 21세기 대전정신이 뭐냐? 정신적인 맥락이라든지 이게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존 기호학파라고 했을 때도 사실 서울을 쪽 둘러싸고 해서, 강서, 강동, 호서, 호남이 다 뭉뚱그려져서 여기까지가 경계다 하는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북만 해도, 사실 충주의 발전은 이미 저쪽 영남쪽이고 남한강따라서는 달천따라서는 여주이씨쪽 영향받아서 거기서부터 사립과가 형성되어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구요. 다음 다리를 너무 세분... 발전하다보면 세분해야 발전하겠지만은, 이 호서학파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민원 선생님 생각으로는 호서학파라고 해서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민원(한국교원대 강사) :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건 아닙니다. 또 자세히 내용을 알지 못하고요. 다만, 기호학파의 범주에서 호서학파를 따로 분리한다고 할 때에는 역시 그러한 학파라고 하는건 지리적인 그러한 그 요소뿐만 아니라 학맥이라든지 학문적인 색깔, 이런 것이 확연히 드러날 때 그런 호서학파니 이런 개념 설정이 가능할텐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내용을 모릅니다. 다만, 호서학파라고 개념을 그렇게 쓸 때, 과연 호서학파라는 것이 기호학파내에서 경기지역이나 호남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학파라든지 학맥, 이런쪽과 과연 어느정도 구분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호서학파라는 것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다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틀림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나.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 차용걸(사회) :장항선쪽 하고 이쪽하고 산남쪽하고 그 분이 충청도가 태어난 곳은 아니고 아마 자연지리적인 매포쪽하고 이쪽하고 달라서 호서학파라고 하지 않았나.....매포학파를 만들고 호서학파를 만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심판관으로서 이해준 선생님이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준(공주대 교수) : 학파, 호서학파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겠지만 호서 지역의 학문의 정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학파라는 것을 누가 만든겁니까. 영남학파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만든거예요. 그러니까 기호학파는 머리 동아리는 경기도에 가 있고, 가운데 동아리는 예학이라고 해서 여기 와 있고, 또 뭐 실학하면 전라도에 가 있고,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

면 학파라는 이름은 뭐라고 붙혀도 그건 다음 일이고 학맥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학맥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별로 문제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하나로 칩니까. 그럴라면 지역별로 정서적으로 이면을 갖는 사람들 끼리를 한번 묶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특징도 나오고 하는건데, 그것도 안해 놓고 이름붙혀 놓고 특징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영남학파도 가 보세요. 영남 좌·우도가 전혀 다릅니다. 퇴계의 계통하고 이쪽 남명계통이 철저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의지에서 볼 때는 영남이죠. 아마 미국사람이 한국에서 난 부산살고 서울에 산다고 싸우는 걸 보면 우스울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경상도 안에도 PK가 있고 TK가 있는 것처럼 지역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와서, 차용걸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이쪽 청풍이나 이쪽 중심으로 수암계통이 있다면 그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얘기가 사계·신독재, 우리 이영춘선생이 하셨지만 사계·신독재로 이어지는 예학의 학맥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암·동춘 죽음다음에 서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무슨 학파가 있었겠어요. 사제로 연결되는것이지.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자리에서 만약 학파나 학맥의 문제가 논의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나는 사계·신독재 이전에 선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 전부 스승을 한 사람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 학맥이라고 하는게.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학자분은 여덟살 때 우연히 감사를 만났는데 그 제자가 돼 있어요. 공부는 딴 사람한테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도 계속 그 제자라구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 하려는 모세 김한국입니다. 배울만한 분이죠. 우리나라 향약도... 사림과의 뭐가 되고 한 분인데... 그런것보다는 실제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 학문을 성취했고, 그 기반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학계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역사라는 측면과 관련을 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파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걸 찾아 놓고 다음에 얘기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심층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차용걸(사회) : 사실 그 발표보다 토론을 많이 해서 발표의 용어를 정리하고 하는데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만은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많이 준비가 되고 그랬으면 깊이 있는 토론이 됐을텐데... 그리고 이 성씨문제나 족단문제라는 것이 일반 학자들이 갑자기 접근하기도 매우 어려운데, 실제 그 현장에 조사를 나가도 가장 그 자료열람이 어려운 것이 이런 분야 연구하는 분들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 총회장을 맡고 계신 김현길 교수님께서 계시는데 한 말씀, 이런 향촌 촌락사에 대해 연구하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저를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역시 배가 고프셔서... 너무 장시간 동안... 역시 문헌사학 하는데는 프라이드도 없고... 우리 김춘실 교수님께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 김춘실(충북대 교수) : 오늘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고,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러한 문헌관계 쪽으로 공부하는게 아니라 시기적인 우리의 조형물을 중심으로 하는 제가 불교 조각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금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이러한 중원지역, 지방문화에 연고를 하는데 있어서 그 시기의 상한이랄까 이런것이 대체적으로 신라말에서부터 고려초로 넘어가는 시대가 인제 관심의 중심이 되는 초기시기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이전의 삼국시대라든가 통일신라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보게되면은 대체적으로 특히 불교문화, 조형문화의 경우, 수도였던 경주라든가 이런 수도지역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포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통일신라시대에도 대체적으로 지방에

서 이런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은 5소경이라든지 이런 지역 정도에 머무르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신라하대에 오면서 전국적으로 선종이라든가 호족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분포되는 양상을 보이고 결국은 이런 지방문화가 크게 번성이 되고 이런것이 대개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시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나말여초시대의 이러한 성씨집단, 호족집단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지역문화의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호연관성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불교문화에 있어서도 오늘 발표했던 진천이라든가 충주지방 또는 청주, 이런 지역에 그러한 호족세력을 배경으로 조성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큰 불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진천의 큰 용화사 석불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충주 유씨를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미륵석불 또 우리 여기 지금 충주지방에 아까 말씀하신 용두사의 그림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 이전의 불적들이라것은 거의 경주, 경북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삼국시대에는 역시 수도였던 부여라든가 이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문화라는 것이 그 만큼 지배계층의 문화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 또는 사회적인 배경 이런것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런 조형문화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고 반대로 우리가 이런 기록이 아닌 조형문화를 통해서도, 기록을 통하지 않고도, 나타난 조형문화의 형상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시대적인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호 연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아까 그 김수태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충주 김씨하고 법상종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보통 지방 호족하고의 얘기는 대개 선종하고의 관련을 주로 많이 그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새롭게 인제 이런 법상종이라든가 그런거와의 관련, 교종과의 관련을 언급하신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법상종의 두파가 있어서 하나는 진표계와 태현계로 이야기를 나눠서 살펴봤지만 결국은 진표계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법상종 문제도, 결국은 이게 법상종이 미륵신앙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금산사나 법주사가 다 미륵의 중심사찰들인데 미륵 신앙은 계통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생신앙하고 하생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우리가 더 시대를 진표보다 더 거슬러서 올라가서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에서 보는 미륵신앙의 하생적인 성격이, 지금 태현계와 진표계로 나눠서 우리가 보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는 백제계, 하나는 신라계로 나눠지는 신앙의 갈래가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태현계는 우리가 보면은 신라에서 법상종의 대표적인 유물로서 감산사 법상이 있습니다. 미륵보살 하고 아미타여래상이 있는데 그 상의 경우 주존이 모은 보살이예요. 미륵보살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런데비해서 이런 하생에서의 주존은 미륵여래불로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것이 쪽 계통을 달리 하는데, 결국 고려시대에서의 법상은 결국, 신라계보다는 역시 진표계가 전체적인 세를 얻지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공부가 없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드리겠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그 궁예의 얘기도 그렇고 이런 뭐지 태현계쪽에서는 신라적인 어떤 경향을 좀 감지할 수 있었구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이미 시대가 벌써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와서 고려시대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는 역시 또 진표계의 일반적인 어떤 법상신앙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생각되는 것도 있었구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용걸(사회) : 역시 요번 발표에서 조선시대라든지 유학중심이 된 고려시대사를 했는데요. 거기다가 조형미술 얘기까지 나왔는것 같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하실 말씀이... 없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여기오신 광산김씨 종문에서... 예, 뭐 말씀하시고 싶은... 짤막하게 좀...

◆ 방청객 : 말씀을 드리기 앞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연구 발표를 주선해 주신 충북대학 당국과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광산 김씨 문벌에 대한 것을 아주 깊이 연구하셔서 외부에서 부터 이렇게 많이 관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끝에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조금 외람되게 자부하고 싶은 것은, 이 호서지방, 중원지방의 특히 충청도 양반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칭호를 받는 것이 저희 선인들의 활약이 컸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사고했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오늘 연구하신 교수님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이영춘(국편위 연구사)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제 충청, 호서 사족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계·신독재 선생이 구축한 그 학문적 구를 중심이 됐지... 그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됐지만은 그 외에 이 지역사회를 이끌던 또 다른 많은 가문도 역시 있겠습니다. 꼭 한 가문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 이제 은진 송씨라든지 안동 권씨라든지 이 분들이 대개 사계·신독재 선생의 제자, 제재 그룹인데, 이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확산되어 가면서 아주 우리 조선후기의 성리학의 중심지역도 되고 또 정치적으로 발언권이 강한 그러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차용결(사회) :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식사후에... 이동해서 저녁식사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일단 이것으로 금년도 정기학술회의, 중원지역의 성씨와 족단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